

■ 책을 읽고 ■

W. E. B DuBois, 1915, 황혜성 옮김,  
『니그로: 아프리카와 흑인에 관한 짧은 이야기』,  
(서울: 삼천리, 2013)

오영인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미시건주(Michigan state)에서 이른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시건주는 2006년 공교육에서 “인종·성별·피부색·출신 민족 및 국가를 근거로 차별을 해서도 우대를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Proposition 2)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러 민권단체에서 이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즉, “주민(유권자)이 투표로 의결한 것을 법관이 바꿀 권리가 없다”는 근거로 대법원은 주민발의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sup>1)</sup>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은 1960년대 거세게 불었던 민권운동의 결실 중 하나로 대학입학이나 취업 혹은 진급 등에서 소수인종 및 여성 등 일부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쿼터를 인정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조치이다. 여기서 소수인종은, 너무도 오랜 기간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에 의해 균등한 교육이나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되어왔던 그래서 ‘강제된 사회정치적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흑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등장 이래로 백인에 대한 역차별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져왔고, 게다가 머지않아 백인이 인종적으로 미국 내 소수가 될 것이라는 백인 내부의 강한 우려와 두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가져올 파급력은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1) *KoreaDaily*, LA 중앙일보, 2014. 04. 23일자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백인 주류사회의 반감을 여실히 드러낸 또 다른 사례는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하버드 대학 내 흑인 학생들의 항의시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도 하버드생이다 (I, too, am Harvard)”라는 뜻말과 함께 화제가 된 이 시위는 하버드 내 여전히 만연한 인종차별, 즉 소수계 우대입학제도가 없었다면 하버드에 있을 이유가 없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인종으로 치부되어온 흑인 하버드 생들이 기존의 심각한 인종편견에 맞서 SNS를 통한 전국적 규모의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sup>2)</sup> 이처럼 ‘왜 성장하지 못한 흑인들을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구제해주어야 하고 반면에 백인들은 중산층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시 역차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반감에 미국의 대표적 흑인인권운동가 윌리엄 듀보이스(William Edward Burghardt Du Bois)는 이미 100년 전에 그의 저작 『니그로: 아프리카와 흑인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통해 단호히 답하고 있다. (특히 pp. 143-159) 즉, 흑인 니그로에 대한 인종편견과 “니그로는 역사가 없다”라는 기이한 확신은 “오늘날 이 찬란한 [서구]문명의 역사와 융성함”이 고대 이래로 어떻게 아프리카 역사·문화와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고, “왜 여전히 니그로는 정체되어있는가?”라는 물음 또한 어떻게 유럽 백인들이 니그로를 희생시켰고 아프리카를 고립시켰었는지에 대한 의도적 망각의 결과라는 것이다. (pp. 60, 156)

듀보이스는, 역자가 지적하듯이, 20세기 전환기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흑인[아프리카 역사를 비롯해]의 역사를 고찰한 역사가이고, 인종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사회과학자였을 뿐 아니라, 지독한 인종주의에 맞선 흑인 지도자”였다.(p. 262) 듀보이스는 당대 또 다른 흑인인권운동의 대부였던 부커 워싱턴(Booker T. Washington)과 비견되며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남부 노예출신이었던 워싱턴이 특히 남부 백인우월체제의 녀를 수 없는 벽을 인정하고 백인과 타협적 자세를 취했던 반면 듀보이스는 흑백 평등의 즉각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동을 요구했다. 이는 1905년 나이아가라 운동(Niagara Movement) 결성과 1910년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의 창설로

2) 국민일보, 2014, 03, 06일자

이어졌다.<sup>3)</sup>

『니그로』는 듀보이스의 저 유명한 저작 『흑인의 영혼(The Souls of Black)』에 비해 대중적으로나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저술이다. 그러나 『니그로』는 흑인해방운동과 범아프리카운동(Pan-African Movement)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듀보이스가 『니그로』를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은 단지 미국 내 흑인들의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었다. 서문에서 스스로가 밝히듯이, 당시는 니그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커녕 “흑인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인종편견이 심했던 시기였고 또 아직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미비한 상태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증명이 갖는 억지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듀보이스는 고대 인류 문명이 탄생한 나일 강에서부터 남아프리카 호텐토트족까지, 유럽의 아프리카 침략에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장까지, 대서양 노예무역의 시작과 신대륙 이주에서 노예반란과 흑인 공화국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니그로의 역사를 “훨씬 전문적이고 역사적이며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설명해내고 있다.(p. 5)

책의 전반부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내 다양한 인종과 종족의 이동과 혼혈 상태를 시기별로 설명하고 있고, 중반부부터 아프리카 문화를 나일 강 유역과 콩고 강 유역, 기니 만, 수단, 남아프리카로 구분하여 차례로 설명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문명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듀보이스는 책의 후반부에 이르러 서구 유럽 열강이 어떻게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을 통한 제국주의화를 거쳐 인간을 상품화해왔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흑인들은 아프리카 고유 사회와 문화로부터 이탈당하고 어떻게 아프리카는 여러 문명들과의 연결고리에서 고립되었는지를 도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물론 남북전쟁의 결과로 “244년 동안 존속해 온 노예제도”를 종식시켰던 미국적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연구 또한 면밀하다. 듀보이스에 의하면, 궁극적 목

3) 1895년 애틀랜타 목회 박람회에서 행한 워싱턴의 유명한 “손가락 연설”은 백인과의 극단적 갈등을 피해 흑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을 통해 흑인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압축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 연설은 향후 두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표가 노예해방이 아닌 연방의 유지였던 남북전쟁은 “갑자기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400만의 노예를 해방시켰다.(p. 203) 이후 해방된 노예에 대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미래 설계 없이 승리한 북부는 결국 흑인문제를 남부 백인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남부 백인들은 노예들에게 주워질 자유에 대한 불안감을 “흑인법”이나 “분리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즉, 흑인을 거의 노예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소하고자 했다는 것이다.(pp. 208-209) 여기서 듀보이스는 이러한 “극악한 불의”와 불평등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흑인들의 적극적 자세에 주목한다. 흑인 유권자 중 4분의 3이 투표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더 이상 흑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흑인들이 “잃어버렸던 조직능력”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pp. 226-228)

역자도 밝히듯이, 『니그로』가 출간된 해인 1915년은 미국 인종의 역사를 제대로 왜곡하고 인종주의 담론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면서 흑인에 대한 백인의 폭력에 정당성을 실어주었던 그리피스(D. W. Griffith) 감독의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이라는 무성영화가 제작되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며 상영된 해이기도 하다. 듀보이스는 이러한 분위기를 당장에라도 전복시킬 듯한 담대한 도전과 저항으로 당대의 인권운동을 이끌어나갔다. 마치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니그로를 읽은 역자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듯이.

마지막으로 듀보이스의 다음의 결연한 호소가 독자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세상에서 또 다른 위대한 인종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 세상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상을 위해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여성 해방, 세계 평화, 민주 정부, 부의 사회화, 인류애를 위하여”(p. 229)

성균관대학교, yioh7@hotmail.com